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기 범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빙하 풍경을 통한 불안 심리의
회화 표현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최 규 리

빙하 풍경을 통한 불안 심리의
회화 표현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권 기 범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최 규 리


인 준 서

최규리의 석사 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장 이 만수 

심사위원 권기범 

심사위원 유근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불안 심리를 빙하 풍경을 통해 표현한 주제로 2021년 ‘침몰하는 선상에서’ 라는 석사 학위 청구 전시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창작물을 바탕으로 기술되었다. 불안 심리와 빙하를 상징적 이미지로 차용해서 진행된 본 연구는 인간의 불안 심리와 자연적 현상의 공통 되는 점과 시대적 상황, 불안 심리 요인 등을 연결 지어 연구하게 되었다. 또한, 작업의 방향과 개념적 토대를 마련하여 연구의 서론인 1장에서는 작품의 형성 배경과 연구 목적에 관해 기술하였다. 작품의 형성 배경에서는 연구자의 불안 심리 요인과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불안 심리 감정이 고조된 상태가 언급되어 있으며, 이를 회화로써 발전시킨 배경과 작품 내용 분석 또한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작품 내용 분석 및 배경에 대해 연구하며 불안 심리에 대한 요인, 내면의 표현, 빙하 풍경의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기술하였다. 연구자의 불안 심리에 대한 고찰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불안 심리는 현대인에게 흔하게 보이는 증상 중 하나이며 대부분이 불안 심리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 심리를 극복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자아탐구를 통해 본인의 잠재된 심리를 고찰, 또는 의학적 치료를 통해 치유, 외적 활동을 통한 신체 단련 등이 있다. 본 연구자는 불안 심리를 회화적 표현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자연 풍경을 인간 심리와 공통점을 찾아 이를 회화로 발현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빙하를 상징적 표현으로 이용해 연구자의 내면을 탐구하였다. 연구자는 본인의 불안 심리를 불안정하게 녹아가는 빙하에 투영했으며 빙하 풍경을 통해 고도의 불안 심리를 표출하였다. 불안한 감정을 의도적으로 끌어내 회화를 통해 탐구하고, 미술 행위로서 불안한 감정을 극복 및 치유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자 본인 작품의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평면적 회화 표현 방법에 관해 기술하였다. 본인 작품의 내용적 측면을 다루며 상징적으로 이미지화한 형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단계에 대해서도 나타내었으며 작품에 드러난 반복성, 시간적 배경에 대한 분석 및 작업에 이용된 색채와 안료에 대해 기술하였다. 연구자는 동양 회화 재료와 서양 회화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회화 기법을 탐구하였으며, 마띠에르 표현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4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를 정리하며, 본 연구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불안 심리에 대한 탐구로 시작한 본 연구는 빙하의 이미지를 통한 조형적 기법들을 함축하였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불안 심리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작품의 형식적 분석 과정을 기술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불안 심리에 대한 분석	3
1. 불안 심리의 요인	3
2. 불안 심리의 내면표현	8
3. 빙하 풍경의 의미	13
III. 작품 표현 연구	20
1. 상징적 이미지 시각 표현	29
2. 재료 및 표현기법 연구	27
IV. 결론	30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sink 10, 장지에 혼합재료, 34.8×24.2cm, 2021	13
【작품2】sink, 145.5×97.0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15
【작품3】sink8, 53.0×40.9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16
【작품4】sink3, 116.8×80.3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17
【작품5】sink9, 53.0×40.9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18
【작품6】sink2, 162.2×112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20
【작품7】sink6, 116.8×80.3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21
【작품8】sink7, 116.8×80.3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22
【작품9】sink 12, 장지에 혼합재료, 53.0×40.9cm, 2021	23
【작품10】sink 11, 53.0×40.9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25
【작품11】sink 13, 53.0×40.9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27

도 판 목 차

(도판1) 에드바르트 뭉크, 불안, 93×72cm, Oil on canvas, 1894, 오슬로 미술관 ·· 8

(도판2) 에드바르트 뭉크, Skrik, 83.5×66cm, 템페라, 오슬로 뭉크미술관 ··· 11

I. 서론

불안은 인간의 주요 심리 작용 중 하나이다. 대부분 현대인에게 내재 되어 있는 감정 중 하나이며 이는 불쾌한 상황과 마주하였을 때, 또는 불안정하고 불분명한 정신의 혼란 등 많은 요인을 손꼽을 수 있다. 최근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 또한 스트레스 증가와 함께 이상 현상들이 발생 되고 있다. 불안이란, 정신적 무질서의 주요 증상이며 때때로 불안한 상황이 예상되고 닥칠 것만 같은 불쾌한 감정을 수반하고 있다. 불안 심리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애착 관계 단절 또는 삶에 대한 고찰, 생애 죽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불안 심리는 공황 장애, 불안 장애 등 정신적 질환과 호흡 곤란, 근육 경련 등 육체적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심리 질환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불안이란 지니고 살기에는 너무나 위협적이고 괴로운 것이며 자신의 경험 · 감정 · 충동 등을 억압한 결과로, 내면의 감정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프로이트는 설명했다. 불안의 심리와 요인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예술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불안은 시대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위협적이고 괴로운 감정이다. 특히 예술가들은 시대적 상황, 내재한 감정인 불안 표출을 작품으로 나타내곤 했으며 불안 심리는 예술적 기반이 되기도 하고 작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여러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했다. 연구자는 이를 대표적으로 서양에서는 노르웨이 출신의 표현주의 화가인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에 대해 연구해 보고 작품 속 사용되는 색채와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불안 심리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대해 알아본다. 또한, 연구자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하여 불안 심리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탐구하고 표현 방법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연구자는 불안이라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내면을 회화 작업을 통해 연구하며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이를 빙하 풍경을 통해 표현해 보았다. 그중에서도 아슬아슬하게 녹으며 점차 사라져가는 불안정한 상태인 빙하의 얼음 조각들을 바라보며 이를 본인의 내재적 감정과 충돌시켜 작업에 접근하였다. 작품에 표현된 빙하의 풍경에는 얼음뿐만 아니라 배경에 배치된 거대한 빙산 또한 연구자의 심리적 감정으로 작용하였다. 연구자는 작품 안에서 불안 심리 작용을 2가지로 분류하였다. 북극의 배경 안에서 점점 녹아 사라져가는 얼음 조각들과 거대한 빙산이 심리 작용으로 표현되었는데 연구자는 사라져가는 빙하의 풍경을 부재의 감정으로 분류시켰다. 이는 사라져가는 존재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존재하던 어떤 것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인간의 불안 심리 중 상실감과 허탈함을 자극하고 이는 곧 극도의 불안한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심리를 자극하여 조형적 언어로 나타내었으며 불안 심리와 관계에 대해 고찰해본다.

II. 본 론

1. 불안 심리에 대한 분석

1) 불안 심리의 요인

불안은 삶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본질적인 감정이다. 불확실성의 연속은 내재한 감정을 뒤흔들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불안은 우리 삶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불안은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근본적인 심리 현상이며, 동시에 모든 심리 질환에 공통되는 병리 현상이기도 하다. 울음으로 생명의 도래를 알리는 인간에게는 탄생 자체가 이미 불안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며 울며, 낯선 이가 나타나도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

사람들은 어둠, 악몽, 고독, 이별, 전쟁, 천재지변, 병, 죽음, 귀신이나 악마, 그리고 심지어 사랑에 대해 불안해한다. 이성 앞에서의 불안, 아내 혹은 남편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느끼는 불안, 어떤 책임 혹은 지위를 맡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 동물에 대한 불안 등 병리적 혹은 비병리적(정상적인) 불안 사례는 무수히 많다.¹⁾

이렇게 불안은 우리 삶에 가까이 밀접해 있다.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태초의 감정이기도 하다.

1) 홍준기, 「불안과 그 대상에 대한 연구 : 프로이트라캉 정신분석학과 키에르케고르의 비교를 중심으로」 2001, p.235.

불안(Angst, anxiety)은 유기체가 친숙하지 않은 환경이나 위험 상황에 직면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으로서 정신의학과 정신분석적 의미 그리고 일반적 의미가 있다. 2)

불안은 다양한 상황에서 작용이 되는데 불안 심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심리학적 요인과 신경학적 요인을 손꼽을 수 있다. 심리학적 요인은 본인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대인 관계, 애정 결핍 등이 있다. 심리학적 요인의 불안은 대부분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며 더욱이 외부적 상황에서 오는 불안은 스스로 바꿀 수 없으므로 이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안 심리 스트레스는 곧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크게 공황 장애와 강박증, 불안 장애 등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현대인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다소 높게 보이며 이는 자아의 주체를 위협하는 부정적 존재이기도 하다. 신경학적 요인은 편도체에 의한 불안 반응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작은 자극에도 편도체가 과흥분하여 공포와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교감신경계가 지나치게 항진해 신체적 증상으로 유발하게 된다. 불안과 공포는 방어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두근거림, 발한, 동공 확장, 근육의 긴장 등과 같은 신체적 반응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이렇게 불안 심리의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는 예술가들에게서도 흔히 보이는 증상이다. 그들은 작품을 통해 이를 표출하곤 하였다. 특히 과거 예술가들은 시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곤 했는데 그 예로 1920년 일제의 문화통치, 1940년대 이후의 분단 정부 수립과 남북

2) 이수진, 「프로이트와 라캉, 불안의 개념화와 정신분석 실천 함의 : 불안, 행위(로)의 이행 너머 환상의 횡단으로」 2021, p.11.

3) 석정호, 김세주, 김찬형, “불안의 생물학적 근원”, 「대한불안학회지1」, 2005, p.7.

전쟁, 1960년대 4·19 혁명과 5·16군사정변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당대 예술가들에게 불안 심리를 작용했다. 이는 당시 예술 작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상은 1920년대 일제의 문화통치에서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조선미술전람회의 출품작들에서 그 양상이 띄고 있다. 조선미술전람회는 3.1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3.1운동은 우리 국권을 강탈한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운동이다. 무력으로 가능할 줄 알았던 3.1 운동이 일어나자 무단정치에 대한 노선을 변경하고 문화정치를 표방한 많은 회유정책을 만들었다. 그중 미술계의 회유정책의 하나가 1922년에 창설한 조선미술전람회이다.⁴⁾ 그런데 일제의 통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선미술전람회는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로 자리를 잡았고, 미술계에서는 신인 등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시 많은 유명인도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화단에 등단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한 작품들이 대부분 조선향토색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⁵⁾ 여기서 조선향토색을 보인다는 것은 일제는 식민지 교육이라는 통치하에 『향토독본』을 발행하는 등 향토교육을 시행했으며 이는 사실 조선 영토를 향토화하려는 식민정책의 하나였으며,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향토색을 강조함으로써 각 나라의 독립정보다는 일본을 중심으로 예측된 지방성이 나타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선전에서 활동한 일본 심사위원들과 일본인 출품 화가들은 이러한 일본 중심의 ‘조선 색’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⁶⁾ 하지만 향토색은 당시 예술가들에게 강제 점령 상황에서 정치적이지 않으면서 민족적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었을 수도 있다. 향토색론은 평론가나 화가의 관점에 따라 그 개념이 조금씩 달랐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⁷⁾ 하지만 결국 시대적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불안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4) 심영옥, 「조선미술전람회 작품의 조선향토색 비평 연구」, 2020, p.27

5) 심영옥, 「조선미술전람회 작품의 조선향토색 비평 연구」, 2020, p.27

6) 최선정, 「1930년대 우리 화단의 향토색 논의와 오지호」, 2017, p.11

7) 김용준, 회화로 나타나는 향토색의 음미, 동아일보(1936.05.03.)

있으며 당대의 많은 화가가 창작 중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인간에게서 자유의 억압 또한 불안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생성되는 불안 요인은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며 인간은 이를 다양한 방안으로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 방안 중에는 예술, 문학, 치유 등이 있으며 자신이 해소할 수 있는 과정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안을 표출한다.

2) 불안 심리의 내면표현

인간은 감정을 표출해야만 한다. 살아가면서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시사한다. 그러한 양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은 표현하고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타인과 혹은 내재된 자아에 대해 탐구하며 살아간다. 예술에서 ‘표현(Expression, Darstellung, Ausdruck)’이란 무엇인가?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모두 ‘표현’이다. 어원에 따르면 표현은 내적인 것을 ‘밖으로 밀어내는’ 외면화를 의미한다. 8) 예술에서 표현은 정신적인 것을 감성적 형태로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런 표현 예술의 특성은 고대 그리스의 종교적 제의의 일부였던 코레이아(choreia)라는 춤에서 발견된다. 이는 제사장이 행하는 숭배 의식으로 내면적 실재를 춤이나 음악을 통해 ‘표현’하는 활동이었다. 9) 이렇게 인간은 예로부터 내면의 표현화를 즐겨 했으며 자연스레 나타내던 본성 중 하나였다. 내면 표현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화하게 하고 분석하게 한다. 인간은 감정을 억누른 채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기에 인간은 본성을 표출해야 했으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었다.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극복해야 하기에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과 방법을 살피기도 한다. 근대 미학에서는 미적 체험의 주체인 미적 의식과 그 대상인 예술 작품이 분리되고, 미적 판단은 예술 작품이 아닌 미적 주체가 느끼는 불쾌의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 예술가는 주관적 체험 내용을 표현을 통해 예술 작품에 고정한다. 감상자는 작품에 담긴 예술가의 내적 체험을 복원하여 자신의 의식에 그대로 반복하는 체험의 과정을 거쳐 작품을 이해하게 된다. 체험 미학에서는 예술가의 내적 체험의 의미 내

8) “Expression”은 포도에서 즙을 짜내듯이 ‘밖으로 밀어내는 것(pressing outward)’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Noël Carroll, *Philosophy of Art: A Contemporary Introduction*,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9, 61쪽 ‘예술과 표현’의 관계는 이 책의 58~106쪽을 참조 할 것.

9) 이은희, *예술의 표현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 H.-G. Gadamer의 예술론을 중심으로, 2016, p.104

용과, 이를 감상자가 다시 체험해서 재내면화하는 ‘이해’의 과정을 내적인 것을 외면화하는 ‘표현’의 과정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었다¹⁰⁾ 이는 인간이 자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내면을 계속해서 탐색한 결과이기도 하다. 자신들의 내면을 드러내려고 시도하고 그곳에 심리적 요소를 포함하며 자아를 나타내었는데 이도 불안 심리와 큰 관계가 있다. 예술작품은 화가의 자화상이며 일종의 심리적인 고백이다. 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투사하고 선과 색채라는 조형언어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의 억압된 세계를 표출한다. 20세기 미술에 있어서 에드바르트 뭉크는(11863~1944) 노르웨이가 낳은 가장 위대한 화가로 사랑, 고통, 불안, 죽음 등을 주제로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표현한 독창적인 예술가로서 미술사의 흐름에 하나의 전환점을 제시하였다.¹¹⁾ 뭉크는 외면과 상실, 불안과 고통 등의 감정을 작품을 통해 표출하였고, 그러한 표현 과정을 통하여 치유 및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도판 1) 에드바르트 뭉크, 불안, 93×72cm, Oil on canvas,1894, 오슬로 미술관

10) 이은희, 예술의 표현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 H.-G. Gadamer의 예술론을 중심으로, 2016, p.105

11) 김동연, 전순영, 「에드바르트 뭉크의 작품에 나타난 불안과 죽음의 상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2001, p. 3

또한, 내면으로 눈을 돌려 불안이나 갈등, 사랑과 고뇌를 표현했다. 그것은 생명력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예술로 실현하고자 했던 시도였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보다는 내면에 내재한 갖가지 의식과 무의식을 어떤 이미지로 적절하게 표현¹²⁾할 수 있을까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몽크는 번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숨김없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나타냈다. 몽크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과 자신을 괴롭히던 상념들을 자화상을 통하여 자신을 형상화하고 상징화하였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고 죽음과 삶에 대한 통합을 투영하여 보여주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몽크의 삶의 여정은 그 후로 계속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철된 삶이었다. 그림 그리는 행위를 통하여 몽크는 자신을 표현하고 몽크는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의식을 확인하였으며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많은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아의 내면을 지각하여 가치관을 형성한 토대 위에 자화상 형식을 빌려 주관적이며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창조했다¹³⁾ 몽크는 회화적 탐구를 통해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아픔, 현재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연작시리즈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화가이다. 결핵으로 인한 어머니와 누이의 죽음 그리고 병마로 얼룩진 어린 시절에 집착해 반복적으로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그 불안과 공포의 의미를 찾으려 하였으며 엄습해오는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자아를 찾으려고 의식적으로 작품에 매달려 왔다. ¹⁴⁾ 몽크의 대표작인 <절규>에서 몽크의 내면적 불안 심리 요인이 크게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작품은 몽크의 심층 심리를 극단적으로 조명 있다.

12) 박완용, 「자화상을 통해 본 빈센트 반 고흐와 에드바르트 몽크의 내면표현에 관한 비교연구」, 2021, p.4

13) 박완용, 「자화상을 통해 본 빈센트 반 고흐와 에드바르트 몽크의 내면표현에 관한 비교연구」, 2021, p.5

14) 김동연, 전순영 「에드바르트 몽크의 작품에 나타난 불안과 죽음의 상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2001, p.4

프랑스에서 귀국한 후 넘실대는 필치로 ‘자연의 절규 소리’를 시각화한 작품이다. 마음의 불안을 표현한 상징적인 자화상으로 최초의 제목은 '절망'이었다. 물결치는 붉은 하늘이나 짙은 청색의 바다. 남자는 무엇인가에 무서워 생각 없이 귀를 막는다. 여기에서 경악의 표정을 떠올리면서 귀를 막고 있는 것은 몽크 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죽음을 여러 번 체험하고, 자신도 병약했던 몽크는 그 불안이 석양으로 빨갱게 된 구름을 피로 느끼면서 갑자기 공포로 변한 것이다. 이 작품은 그가 ‘호흡하고, 느끼고, 고뇌하고, 사랑하는 살아있는 인간을 그릴 것이다’라고 한 선언대로 공포라고 하는 내면세계를 시각화한 작품이다.¹⁵⁾ 불안 심리와 예술은 직결되는 것이다. 몽크는 미술을 통해서 자신을 찾았고 그러한 창조적 에너지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자신 내부의 깊숙한 무의식의 억압된 세계로부터 용감하게 나와서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의식적으로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⁶⁾ 이렇게 내면과 표현 욕구는 계속해서 상호작용 하고 심리를 자극하여 나아가게끔 한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와 불안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고찰은 곧 불안 심리로 발현되기 마련이다. 불안을 표출함으로써 쾌락과 치유의 과정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불안과 고통을 예술로써 승화할 수 있다.

15) 박완용, 「자화상을 통해 본 빈센트 반 고흐와 에드바르트 몽크의 내면표현에 관한 비교연구」 2021, p.10

16) 김동연, 전순영 「에드바르트 몽크의 작품에 나타난 불안과 죽음의 상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2001, p.4



(도판2) 에드바르트 뭉크, Skrik, 83.5×66cm,
템페라, 오슬로 뭉크미술관

연구자 또한 내면에 잠재된 불안 심리 요소를 작품을 통해 표현했는데 연구자는 우선 내면 심리를 깊게 탐구하고 인간의 감정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인간에게 감정이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말한다. 개인의 경험에 대해 느끼는 기쁨, 슬픔, 사랑, 절망, 분노, 두려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듯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감정이라는 내적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 감정은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은 늘 이 위태한 감정에 흔들리는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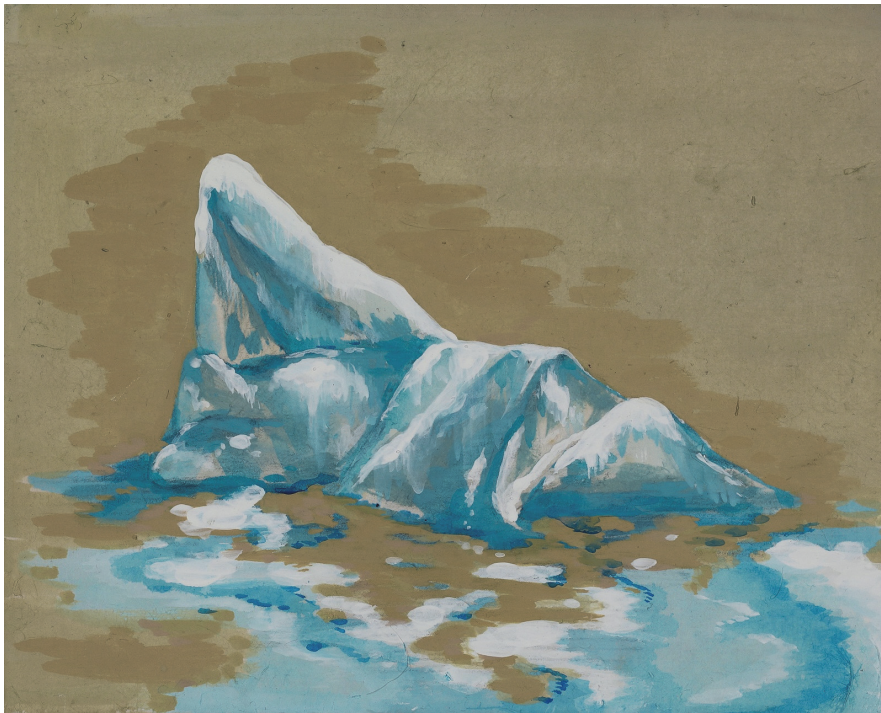
(3) 빙하 풍경의 의미

자연과 예술은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이고 체계적인 틀에 맞춰진 것이 아닌 언제나 변화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자연과 예술의 공통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예술가가 자연에 영향을 받고 이를 작업에 투영시키곤 한다. 불안 심리는 자아를 자극하고 예술가들은 수많은 방법으로 이를 표현한다. 예술가의 작업이 문화적 맥락에서 벗어나 존재할 수 없는 반면, 타문화에 대한 재현 여부와 그 방식은 개개 예술가의 논리에 따른 선택이다. 17) 연구자는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평면적 회화 기법을 선택했는데 특히 빙하를 상징적 이미지로 사용했다. 빙하는 눈이 오랫동안 쌓여 다져져 육지 일부를 덮고 있는 얼음층이다. 빙하는 흘러내리는 얼음을 말하며 얼음은 승화하거나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는 양, 곧 삭박 되는 양보다 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에서 눈이 다져져 생긴다. 얼음이 많아지면 자체의 무게로 흘러내린다. 그러므로 빙하는 극지나 고산지대에서만 만들어진다¹⁸⁾ 이는 연구자의 심상을 대변하는 자연현상이며 곧 내면으로 직결된다. 연구자의 작품에 표현된 빙하의 풍경에는 얼음뿐만 아니라 배경에 배치된 거대한 빙산 또한 연구자의 심리적 감정을 작용하였다. 연구자는 작품 안에서 불안 심리 작용을 2가지로 분류하였다. 북극의 배경 안에서 점점 녹아 사라져가는 얼음 조각들과 거대한 빙산이 심리 작용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망가져 가는 빙하의 풍경을 부재의 감정으로 분류시켰다. 부재는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의 상황을 뜻한다. 존재하던 어떤 것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인간의 불안 심리 중 상실감과 허탈함을 자극하고 이는 곧 극도의 불안한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것은 애정하던 것의 사라짐일 수도 있고 기다리던 이의 무응답일 수도 있다.

17) 정옥희, 「예술가가 타자를 재현할 때 : 엘레너 킹 (Eleanor King) 사례 연구」, 2007, p.203

18) [네이버 지식백과]빙하 [Glacier, 氷河] (지질학백과)

존재하던 것이 무존재가 되었을 때 인간은 큰 상실감을 느끼고 이는 곧 불안정한 상태로 직결된다. 불안정하게 녹아내리는 얼음을 연구자는 불안 심리로 직결시켜 이를 조형 언어로 나타내었다. 얼음은 일정 시간 내에 사라지는 존재이며 이는 부재의 존재와 유사한 점을 보인다. 연구자의 이러한 내적 심리는 【작품1】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작품 1】 sink 10, 장지에 혼합재료, 34.8×24.2cm, 2021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빙산이 녹는 장면을 연출하고 이는 감상자에게 곧 사라질듯한 불안감을 유도하였다. 극단적인 한 개체의 묘사를 통해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내재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흘러내려 고체에서 액체가 된 빙하의 상태는 부정적 상황을 암시하기도 한다. 상상력은 정신 속에서 이미지를 형성하고 변형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힘이다. 이에

의해 판타지, 허구, 가상이 창조된다. 창조적 상상력은 단지 현실적 세계를 표상하는 것을 넘어 가능성, 개연적, 예지적 세계를 표상한다.¹⁹⁾ 예술가는 자연과 융합하여 내 안에서 유발되는 감정을 외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또 다른 감각으로 끌어낼 수 있다.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받는 만큼 자연 또한 예술가에게 여러 가지 소재가 될 수 있으며 예술가는 이를 넓게 수용하며 차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에 의한 영향은 연구자의 작품 안에서도 크게 보여지고 있다. 【작품2】는 연구자가 북극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시청 후 연구자의 내재된 심리와 북극의 광활하고 공허한 풍경에 공통점을 느낀 후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본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담아내면서도 현재 동시대의 공통적인 고민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회화적으로 풀어내었다. 특히 【작품2】에서 보이는 풍경은 연구자에게 내재된 불안 심리와 상황이 표현기법을 통해 보이는데 이는 점차 사라져가는 북극의 빙하 상태를 보고 연구자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강렬하고 두꺼운 색채 기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날카롭고 빼곡하게 배치된 수많은 얼음 조각들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이게 함과 동시에 뚜렷하게 표현된 묘사는 연구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불안의 요소는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우리는 상당히 가깝게 그리고 매우 일상적으로 불안 심리를 내재하고 있다.

19) 김수현, 「예술가의 상상력, 그 다양한 층위」, 2012, p.183



【작품 2】 sink, 145.5×97.0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작품 3】 sink8, 53.0×40.9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작품3】은 단단하게 눈이 쌓인 빙산을 통해 정제된 듯한 느낌을 주며 일상이 정지된 상황을 표현하였다. 특히 정적인 화면 구조를 대입하여 감상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인간에게 일상이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뜻한다. 일상은 늘 같은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한다. 익숙한 것에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는 삶이 갑작스레 무너진다는 것은 큰 불안감을 작용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을 곧 사라질 수도 있는 빙하의 풍경과 공통된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일상 속에서 무너짐은 순조로운 질서를 혼란케 하고 불안 심리를 작용한다.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은 일상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궁지에 내몰리게 한다. 의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은 무력함을 느끼게 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배경에 배치된 큰 형태의 산은 단단한 느낌을 주면서 화면 안에서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여있는 빙하의 상태와 상대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비되는 장면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이 또한 불안 심리를 작용하기도 한다. 한 작품 안에서 자연 풍경을 통해 내재된 심리와 상황을 나타낼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를 활용하여 본인의 불안 심리의 요소로 활용하였다. 더불어 의도된 투박한 붓질과 흩어진 얼음 조각의 배치를 통한 회화적 표현이 심리적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는 일상에서 느낀 감정을 회화로써 형상화 시킨 것인데 연구자는 이러한 요소를 통해 다양한 조형성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점 이동을 통해 여러 장면의 상황을 연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자 내면을 시각적으로 구축해갔다.



【작품 4】 sink3, 116.8×80.3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이와 같은 회화적 표현은 【작품4】와 【작품5】에서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연구자는 일상과 같은 자연스러운 매개체를 통하여 불안 심리에 접근하고자 했다. 또한, 날씨라는 자연스러운 요소를 통해 불안 심리의 흐름을 나타내려 했는데 날씨를 통해 느낀 기분과 감정을 화면 속에 공유하고자 했다. 계절과 기후에 의해 변화하는 날씨를 연구자는 본인의 심상과 같다고 생각했다. 불안정한 심리는 표류하는 배와 같다. 목적을 잃고 흔들리는 자아는 정신적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괴롭게 하며 더 깊숙이 자리 잡게 된다. 이를 화면 안에서 채도가 낮은 색감과 다소 차가운듯한 분위기로 나타냈으며 연구자의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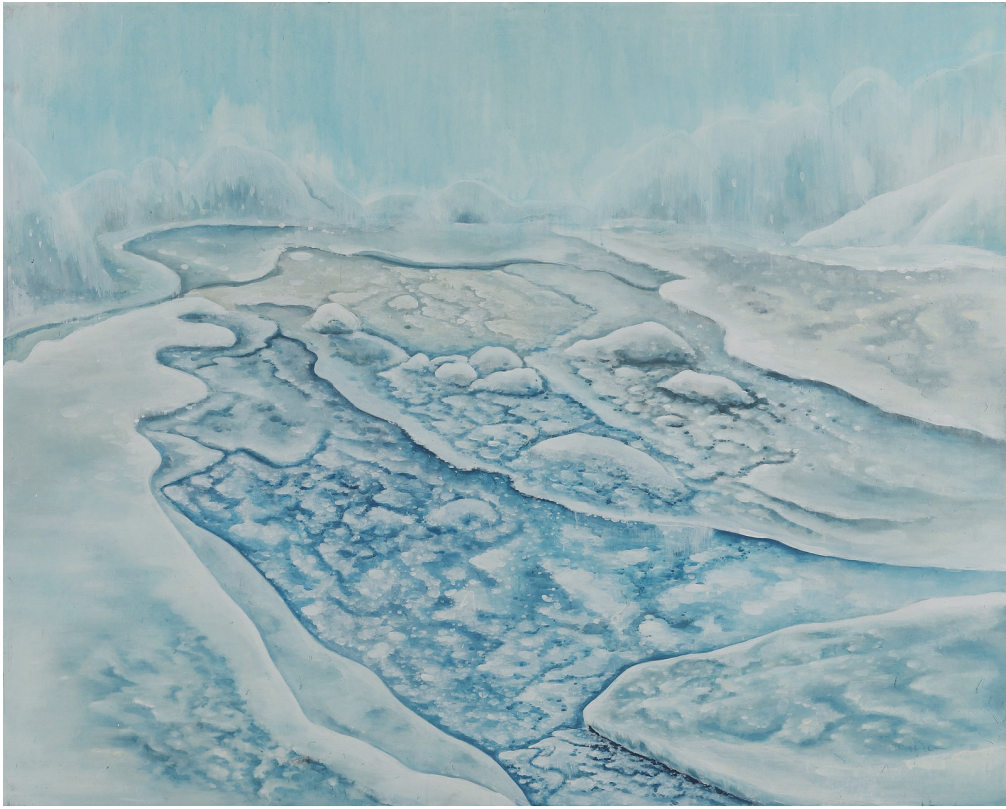


【작품 5】 sink9, 53.0×40.9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Ⅲ. 작품 표현 연구

1. 상징적 이미지 시각 표현 연구

연구자는 빙하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하여 내재된 감정을 회화적으로 나타내었다. 상징적 이미지는 자신의 조형 언어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자는 이를 내재된 심상과 불안 심리를 함께 형상화 시켰다. 초기 연구자의 작업에서는 빙하의 풍경보다는 눈 내린 겨울 풍경이 표현되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를 느낀 연구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혼란스러움과 불안감을 도착지를 알 수 없는 풍경으로 나타내었다. 연구자는 빙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본인이 당면한 문제와 상황을 자연 풍경에 빗대어 표현했으며 결국 이는 작업 sink 시리즈 작업의 발판이 되었다. 연구자의【작품6】에서도 연구자가 느낀 내적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 이는 연구자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생활의 흐름과 뒤바뀐 일상의 혼란 속에서 작업 된 것이며 연구자는 이 시기에 자유로운 외부 활동의 중단에 공허함을 느꼈다. 연구자는 이 감정을 평면적 화면 안에 최대한 넓게 도출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즉흥적인 드로잉 방식과 먹먹한 기분을 은은한 채색이 주요한 표현기법으로 나타난다. 앞의 화면 구도에서 뒤의 구도까지 길게 뻗은 빙하의 표현은 더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과 염원을 나타낸 것이며 또한 소복이 쌓인 눈송이들은 정지된 듯한 느낌을 주며 이는 연구자의 중단된 일상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이렇게 자신의 억압 된 감정을 드넓게 표현함으로써 자아를 표출하고 나아가 이를 시각적으로 통찰하고 수용했으며 이는 감정적 매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작품 6】 sink2, 162.2×112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작품 7】 sink6, 116.8×80.3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sink 시리즈의 또 다른 【작품7】에서는 가장 중심 부분에 반짝이는 빙하 얼음 조각을 배치하여 이 전의 작업보다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을 나타내었다. 이는 작가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심리를 대변하고 있으며 얼음이라는 개체를 사용함으로써 이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였다. 또한, 반복적으로 나열된 작은 얼음 덩어리들은 사소하지만,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걱정과 고민을 나타낸 것이며 연구자와 이와 같은 반복적인 형태를 나열함으로써 불안 심리를 해소하면서도 화면 속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 빙하의 하얀색의 색감과 대비되는 남색 계열을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변화를 주었다. 또한 그로테스크한 느낌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산 풍경의 채색법은 연구자의 내재적 고통을 나타내며 채도가 낮은 색감으로 이를 더욱 극대화하였다. 불안과 고통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면

서도 연구자는 불안 심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점차 나타내고 있으며 자연의 개체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였다. 또한, 물과 얼음의 대비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심상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8】 sink7, 116.8×80.3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위와 같은 【작품8】의 경우는 찰랑거리는 빙하의 묘사를 반짝이는 찰나의 빛의 효과로 극대화하여 감상자의 시점을 유도하였다. 작가는 이러한 빛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밝은색과 윤곽선의 구분하였다. 화면 속 투명함을 나타내는 묘사는 좀 더 실감 나게 표현하기 위해 실제 빛이 드는 공간에서 얼음을 녹여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탐구하였다. 연구자는 작업 도중 흘러내린 물감의 흔적 또한 의도적으로 남겨놓으며 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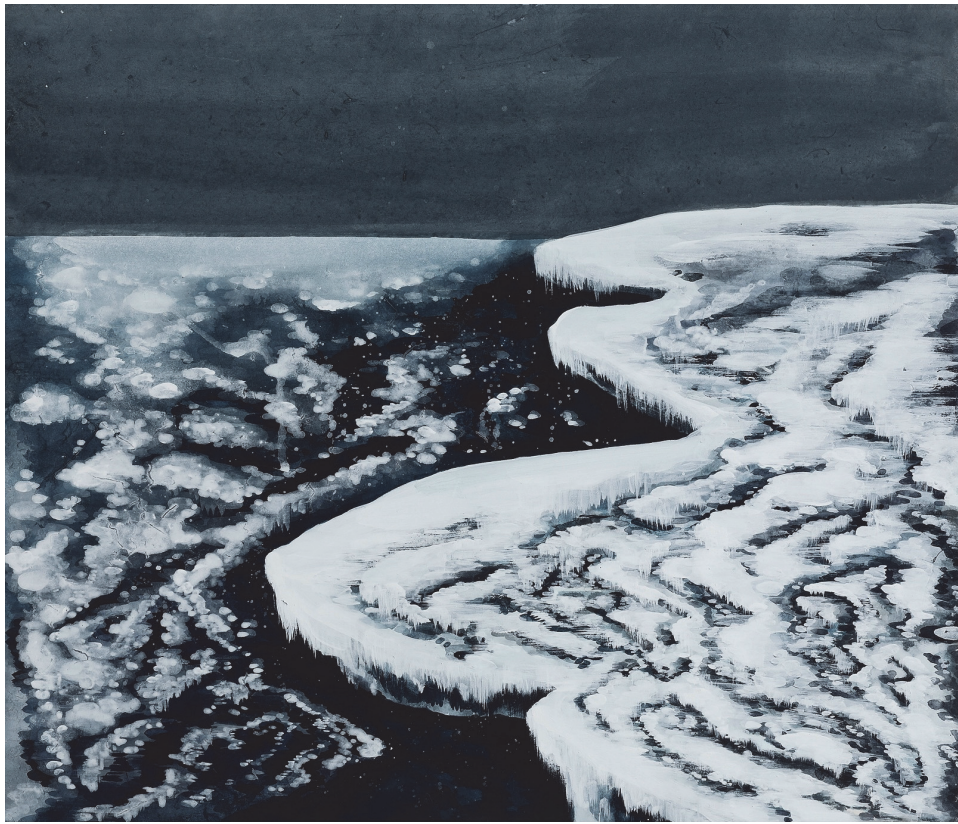
최대한 연구자의 불안 심리를 작업 과정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음을 드러내었다. 초반 연구자는 불안 심리와 빙하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고의로 충돌시켜 화면 속 작품을 만들어 냈지만, 이로 인해 결국 극복과 치유의 과정 또한 가지게 되었다. 또 다른 【작품9】는 시간적 변화 설정을 통해 기존의 작품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다. 야간이라는 설정은 극도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공포감을 조성했으며 이는 이전의 작업보다 불안 심리 요소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의 불안 심리는 다양한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이 원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9】 sink 12, 장지에 혼합재료, 53.0×40.9cm, 2021

어둠이라는 소재로 상황을 극적으로 연출하고자 했던 연구자는 불안 심리로 인해 처한 상황의 계속해서 느꼈던 우울감을 나타내고 싶었다. 인간은 대체로 우울감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밤이라는 시간적 상황에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인간에게 어둠이란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환경이며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화면 안에 담아내고자 했다. 밀려오는 어둠은 단계적으로 우울감을 조성한다. 연구자는 본인의 침체 되고 어두운 불안 심리를 표현하려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불안 심리가 더욱 극대화되어 또 다른 작품을 창작하였다. 【작품10】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좀 더 어두워진 작품의 분위기를 통하여 연구자의 우울함과 불안 심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적 변화를 미적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작품 오른쪽에 배치된 단단하게 얼어붙은 빙하는 어둠과 대비되는 색상을 통해 불안정하고 두려운 상황을 대담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왼쪽 구도에 배치된 소복이 쌓인 눈송이들도 곧 빙하로 얼어붙을 복선임을 예견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자연의 변화와 시간적 흐름을 활용하여 내재된 불안 심리를 조형적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다양하게 연구하였다.



【작품 10】 sink 11, 53.0×40.9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2. 재료 및 표현기법 연구

연구자는 내면에 고조된 불안 심리를 화면에 그려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료와 진행 방법에 대해 연구 후 작업에 행하였다. 연구자는 동양화의 선이라는 요소와 건식 채색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채색하기 전 동양화 재료인 장지 위에 아교 반수를 여러 번 진행한 뒤 연필을 이용해 스케치한다. 스케치할 때에는 최대한 디테일한 느낌의 선적인 요소를 부각했다. 채색할 때는 건식 채색법으로 진행했는데 건식 채색이란 마른 종이 위에 물감을 칠한 후, 물감의 영역이 마르면 그 위에 덧칠하여 자연스레 겹치게 하여 중첩의 효과를 내준 것이다. 연구자는 이 중첩의 효과로 깊이감을 더해줬으며 눈 내리는 풍경의 무겁고 축축한 현장의 느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내면의 어두움을 나타내기 위해 동양화와 서양화의 기법과 재료를 재구성하여 회화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동양화 재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서양화 재료인 과슈와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두꺼운 느낌을 살렸으며 이는 내면의 색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표현기법을 살펴보면 번짐, 묘사와 같은 반복된 행위를 알 수 있다. 이는 연구자의 근원적 외로움과 불안 심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에너지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는 작업을 진행할 때 최대한 내면에 잠재된 불안 심리를 화면에 담고자 했으며 이는 정서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연구자는 최대한 불안 심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의도적으로 화면에 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불안이라는 감정은 계속해서 지속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불안을 이끌기 위해 불쾌한 상황이나 부정적인 기억을 상기시켰으며 감상자가 불안이라는 내면의 감정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마띠에르를 통한 질감 표현을 통해 떨어지는 눈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과슈와 아크릴의 특성을 잘 살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다양한 기법적 연구를

통하여 고도의 불안함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이는 【작품11】에서 또 다른 기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전 작품과 공통된 빙하 풍경 속 눈 내리는 장면이지만 이 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작품 11】 sink 13, 53.0×40.9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이 전에는 빙하가 이미 얼어버린 내재된 불안의 끝을 표현하였다면 위의 작품에선 불안과 우울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색감의 표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회색 계열의 색감과 다소 채도가 낮은 색감으로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는 연구자의 부정적 내면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연구자는 이를 작업하던 시기에 상실감이라는 고통을 느꼈으며 이를 통해 불안 심리의 과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구도와 묘사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처럼 연구자의 내면과 사고를 다양한 채색법과 드로잉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였으며 이는 불안의 승화 과정을 뜻하기도 한다. 또한, 화면 속 눈의 입자들이 모여 하나의 형태가 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내면의 불안이라는 의식이 선과 면의 요소로 자유롭게 페인팅 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고통을 덜어내고 해소함으로써 내재된 불안 심리를 예술적 활동으로 승화시켰다.

IV. 결 론

본 논문은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 심리 요소를 회화 작업을 통해 승화하고 고찰한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우리의 삶은 불안이라는 감정과 분리될 수 없다. 불안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발현된다.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어떤 것의 상실, 누군가의 부재 등 수 많은 상황은 이 불안이라는 잠재된 심리를 자극하고 인간은 이를 표출하고자 한다. 내재된 감정을 표출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또한, 인간은 사랑과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사랑은 불안을 치유하기 위한 행위이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감정을 작업의 과정을 통해 치유하거나 감상자에게 위로의 감정을 전달하기도 한다. 연구자는 이를 조형적 행위를 통해 치유하고 극복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빙하라는 상징적 이미지로 이를 나타내었는데 빙하는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영역이다. 당장이라도 아슬아슬하게 녹아내릴 것 같은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불안 심리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 심리학적 요소와 신경학적 요소로 구분하여 연구하였고 연구자는 심리학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불안 심리 요인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이지만 예술가는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고도 기술하였다. 그 예로 일제의 강제 문화통치 시기였던 1920년대의 예시를 들며 당시 작가들이 조선미술전람회에 향토색이 주요 요소가 된 작품을 출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기술하며 시대적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불안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대의 많은 화가가 창작 중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시대적 상황에서 유발되는 불안 심리뿐만 아니라 내적 불안 심리에 관해서도 서술하였는데 이는 에드바르 뭉크를 예시로 뭉크의 절망적이고 과도한 불안 <절규>라는 작품을 통해 극단적으로 표출되어 있음을 기술하였다. 뭉크의 <절규>에 나타난 내면세계의 시각화를 연구하고 연

구자 또한 이를 화면에 담아내었다. 이렇게 연구자 또한 내면에 잠재된 불안 심리 요소를 작품을 통해 나타내었는데 연구자는 우선 내면표현에 깊게 탐구하고 감정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개인의 경험에 대해 느끼는 기쁨, 슬픔, 사랑, 이별, 절망, 분노, 두려움 등이 이에 해당이 되며 연구자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분류하여 보았다. 감정은 실제 경험 때문에 느끼는 감정과 그 감정에 대한 자신의 판단으로 일어나 감정.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았다. 작품의 표현 방법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연구자의 초기 작업 방식에는 선적인 요소와 드로잉을 사용하여 작업 하였지만, 중반부로 갈수록 선적인 요소보다는 면의 방식으로 화면을 채웠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채색할 때 묘사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과슈 물감의 두꺼운 느낌을 이용했다. 또한, 자연 풍경이라는 매체를 활용하는 만큼 여러 가지 구도로 표현하였는데 화면 배경에 배치된 큰 형태의 산은 단단한 느낌을 주면서 작품 안에서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여있는 빙하의 상태와 상대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대비되는 장면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이 또한 불안 심리를 작용하기도 한다. 시간의 흐름도 작업의 방식 중 하나로 이용되었는데 낮이라는 설정에서 야간으로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 또 다른 긴장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어둠은 인간에게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환경이며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화면 안에 담아내고자 했다. 연구자는 초반의 작업과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효과를 이용해 더욱 풍부한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불안 심리를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불안과 사랑이란 태어남과 동시에 잠재된 감정과 같은 것이다. 연구자는 이 잠재된 의식을 활용해 회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렇게 연구자는 인간의 불안 심리를 예술적 활동을 통해 표출시키고 감상자의 공감을 끌어내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용준, 회화로 나타나는 향토색의 음미 , 동아일보 (1936.05.03. '예술과 표현'

김수현, 「예술가의 상상력, 그 다양한 층위」.

논문

홍준기, 「불안과 그 대상에 대한 연구 : 프로이트라캉 정신분석학과 키에르케고르의 비교를 중심으로」 2001

이수진, 「프로이트와 라캉, 불안의 개념화와 정신분석 실천 함의 : 불안, 행위(로)의 이행 너머 환상의 횡단으로」 2021

심영옥, 「조선미술전람회 작품의 조선허토색 비평 연구」, 2020, p.27

최선정, 「1930년대 우리 화단의 향토색 논의와 오지호」, 2017, p.11

이은희, 예술의 표현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 H.-G. Gadamer의 예술론을 중심으로, 2016, p.104

박완용, 「자화상을 통해 본 빈센트 반 고흐와 에드바르트 뭉크의 내면표현에 관한 비교연구」, 2021, p.5

정옥희, 「예술가가 타자를 재현할 때 : 엘레너 킹 (Eleanor King) 사례 연구」, 2007, p.203

학술지

석정호, 김세주, 김찬형, “불안의 생물학적 근원”, 「대한불안학회지1」, 2005,

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ABSTRACT

A Study on the Plane Expression of Anxiety Psychology through glacial landscape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 -

Choi, Gyu Ri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thesis deals with the topic of expressing anxiety as a glacial landscape, and it was written based on the creations from 2019 to 2021, along with the master's degree claim exhibition titled "On the Sinking Ship" in 2021.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borrowing anxiety psychology and glacier as symbolic images and looked into the commonalities between human anxiety psychology and natural phenomena, the situation of the times, and anxiety psychological factors. In addition, by preparing the direction and conceptual foundation of the work, the introduction chapter 1 describes the background of the work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In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the work, the state of heightened

anxiety due to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the researcher and the atmosphere of the times is mentioned, and the background for developing it into a painting and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work are also described. In Chapter 2, the content analysis and background of the work are studied, and the factors of anxiety psychology, inner expression, and the meaning of the glacial landscape are also described. The researcher's study of anxiety psychology started with emotions that are normally felt in everyday life. Anxiety is one of the most common symptoms of modern people and is inherent in most people. There are several methods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is anxiety psychology. These can include examination of the latent psychology through self-examination, healing through medical treatment, physical training through external activities, etc. The researcher is trying to overcome anxiety through pictorial expression. The writer tried to find the commonalities between the changing natural landscape and human psychology and express them through painting. The researcher explored her inner self by expressing the glacier symbolically. The author projected her anxious psychology onto the unstable melting glacier, and a high degree of anxiety was expressed through the glacier landscape. The artist tried to overcome and heal her anxious feelings by intentionally drawing out her own anxious feelings, exploring them through painting, and performing art activities. In Chapter 3, the researcher's own work was analyzed and her method of expressing her flat paintings was described. She deals

with the content aspect of the work and explains the stages as well as the symbolically imaged form. She also described the colors and pigments used in her work as well as the analysis of the repeatability and temporal background revealed in her work. The researcher has explored various techniques using Oriental painting materials and Western painting techniques and also suggests various ways to express *matière*. Chapter 4 summarizes the research of this thesis and presents the direction and purpose for the future. Also, this study, which started as an exploration of anxiety psychology, implied formative techniques through glacial images. As mentioned abov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anxiety psychology and the formal analysis process of the work are described.